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동맹휴학 1년5개월 만에 입장문
전공의도 14일 국회 간담회 예정
학사 일정·형평성 문제 등 과제로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도 출구가 보이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에 나선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고 해서 당장 월요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당장 7월이라도 1학기 수업에 복귀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학사 운영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2학기 복귀도 간단하진 않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제적 대상은 46명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이번 복귀 선언은 정부와 대학들에 공을 넘기고 “복귀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학사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대 학장들도 일단은 “교육 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함께 의정 갈등 해소의 열쇠를

쥔 또 다른 주체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 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준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며 복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협은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에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병무청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 홍소영 임명

이 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사 단행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낙점

이재명 정부 첫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이다. 국가보훈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낙점됐다.

강윤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홍 신임 청장과 강 신임 차관 등 차관급 12명 임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홍소영 청장은 경기 수원 출신으로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정보기획과장, 병역자원국장 등을 거쳤다. 병무청 내 정보·전산 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고 치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진 차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보훈부 보훈정책관, 정책기획관, 대구지방보훈청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1차관에 구혁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인규 서울시립대학교 물리학과 석좌교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강윤진 보훈부 차관



홍소영 병무청장

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중소기업부(중기부) 차관은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또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 관세청장에 이명구 관세청 차장, 국가유산청장에 허민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에 임승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신임 청장 임명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공정한 병무 행정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과 관련해서는 “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올랐고, 소통능력과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령 기자



속초 해수욕장 피서객 붐비 13일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우리·기업·하나은행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내년 7월 서비스…총 10개 민간 앱 확대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4개 은행 앱에서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앱과 총 10개 민간 앱에서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선정된 4개 기업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 8회 고객기관과 함께하는

IT 신기술 세미나

클라우드·AI시대,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일시 2025. 7. 18. (금) 09:30

장소 국방컨벤션센터

주최 국방통합데이터센터

※ 참가문의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경영혁신실 994-6211(군), 070-4872-6211(일반)

